천국의 현두각(見頭角)과 그림자

(막4:30-41)

30.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31.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32.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33.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 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34.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천국의 현두각(見頭角)과 그림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현두각이라는 말은 나타날 현(見) 그리고 두각(頭角), 두각을 나타내다.
천국이 두각을 나타내는 것과 천국의 그림자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두각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중국에 따로 있습니다마는, 가장 우리가 알기 쉽게 느낄 수 있는 예가 있다 그러면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예가 될 것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기노시다 도키치로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기노시다라고 하는 이 가문은 일본에 변방에 오와리 국이라고 하는 변방이 있는데, 그 변방 지방에 하급무사 집안입니다.
정말 별 볼일 없는 집안이고, 그 당시 일본에 어떤 정계의 풍토상, 이 하급무사 집안에서 태어난 한 아들이 일본 전체를 평정하고 군주가 될 것이라고는 법제상으로도 불가능하고 사람들의 통념상으로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 기노시다 도키치로라고 하는 이 젊은이가 22살 나이에, 그 당시

일본 전체를 할거 하고 있는 영웅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장군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 휘하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각별한 마음을 갖고, 야심을 갖고 오다 노부나가에게 충성을 다하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거예요.
항상 오다 노부나가의 말고삐를 잡고 다녔고 뿐만 아니라 오다 노부나가가 집에서 나오려고 할 때면 그 나막신을 가슴에 품고 있다가 따뜻하게 해 갖고 오다 노부나가에게 드리곤 했다고 합니다.
이런 정도로 신경을 쓰면서, 이렇게 충성된 행동뿐만 아니라 그의 칼잡이 솜씨라든지 판단력이라든지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두각을 나타내다가 결국은 일본을 평정하게 됩니다.
대단한 역사에요, 우리나라에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정유재란을 일으킨 자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명나라를 치겠다고 하는 야심을 가진 것도 이 당시 까지는 일본 역사 속에서 최초로 있는 일입니다.
결국은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명나라를 치기 위한 교두보로서 조선을 내놓으라고 하는 그 요구를 조선이 거절하자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임진왜란이 또 실패로 돌아가자 정유재란을 일으켜서 정유재란 때 죽습니다.
결국 까불다 죽은 거지요.

그러나 일본 자체 내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인 것이지요.
정말 겨자씨 같이 미비한 존재가 채소밭에 심겨지면 3미터 4미터 아니면 7미터까지나 커진 겨자나무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채소밭에 뭐 무 심고, 당근 심고, 배추 심고, 시금치 심고 이래봐야 다~ 씨들은 겨자씨보다 큰 것들이지만, 기껏 자라봐야 뭐 50센티가 되겠습니까?
근데 겨자씨는 가장 씨 중에선 작지만, 3미터 4미터 5미터로 크는 것처럼, 기노시다 도키치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태어난 이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되는 이 상황을 보면, 정말 두각을 나타낸 것이지요.

자! 내 삶의 영역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삶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 삶의 대상들 중에서, 마음 차지하기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 마음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군웅할거 되어 있는데, 내 마음을 분할해서 갖고 있는 영웅들이 누구입니까?
배우자,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식들, 아니면 내가 하는 사업, 그리고 당장 돈 문제, 당장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집세 내야 된다는 이런 현실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송두리째 뺏어가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러한 내 마음을 분할해서 차지하고 있는 영웅들에 비해서 이 천국의 힘이라는 것은, 기노시다 도키치로처럼 너무너무 미비합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이렇게 강력한 배우자라든지, 자녀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건강 문제라든지 하는 이러한 현실 문제에 비교할 때, 그 현실감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미약해서 그 누구도 천국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건 나중의 문제입니다.
당장에 먹고 살기가 바빠 죽겠는데 무슨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겨자씨처럼 작다는 것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현실감, 느끼게 되는 그 현실감의 크기가 겨자씨같이 작다는 겁니다.
돈 문제에 대해서 느끼는 현실감, 엄청나게 큽니다.
배우자가 옆에서 아옹다옹 하면서 바가지를 긁습니다, 현실감이 굉장히 큽니다.
완전히 하루를 잡칠 수도 있고 하루를 기분 좋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현실입니다, 배우자라는 그 위치가.
자식들, 엄청난 현실이지요.
여전도 회장님들은 교회문제, 교회행사, 바자회 엄청난 현실입니다, 마음을 다 뺏어갑니다.
그러나 천국! 아~이건 나중 일입니다.
지금은 천국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성 안에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영역 안에서, 현실감 제로, 겨자씨! 이 세상에 있는 씨 중에 겨자씨가 가장 작다.
이것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더 작은 씨가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서는 제일 작은 씨였는데, 지금 천국이라는 것이 말씀으로만 확증 될 수 있는 이 천국! 손에 쥐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이 천국!
현실감이 바로 겨자씨처럼 가장~ 작은 것이고, 현실감이 작다는 것은 내 마음이 가장~ 작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과 나를 동일시하는 것이 기독교 믿음의 출발이요 완성입니다.
이 믿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을 왕창 뺏어가는 강력한 영웅 배우자, 배우자에 대해서 내가 주님과 십자가에 함께 연합해서 죽었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녀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인데, 왜 우리가 이것을 고백합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왜냐 하면, 돈 문제가 아무리 급하지만, 돈이 먼저 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계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계시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먼저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 먼저 마음을 드리고 나서 그걸 통과한 뒤에 돈 문제로 가든지 말든지 해야 하는데, 돈이 먼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 갈 때도, 돈 문제가 먼저 마음을 점령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아 간다는 거지요?
이건 바로 죄악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한다는 건데, 그런 하나님은 만나지지도 않고 없습니다.
우리가 돈 문제나 자식문제나 세상의 문제, 세상의 현실을 더 먼저 당겨서 마음이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고백은 내 마음을 뺏어가는 모든 현실 앞에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믿음이 작동합니다.
내 마음을 강력하게 뺏어가는 현실들 앞에서 '내가 죽은 자인데, 주님과 함께 죽은 자인데'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이 믿음이 발동되고 있는 동안에, 그 강력한 영웅과 같이 내 마음을 분할해서 장악하고 있던 그 영웅들 틈바구니에서 존재조차 없었던 천국이 점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오직 잡히는 것 하나 없고 보이는 것 하나 없고 만져지지도 않는 그 천국! 말씀으로만 확증될 수밖에 없는 그 천국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천국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내게로 다가온 천국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하면서, 점점 커져서 나에게 제1현실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제1현실이.
그리고 제1현실이 된 그 천국이, 내 삶 전체에 그림자를 드리우게 된다는 거예요.

겨자씨가 가장 작지만 자라게 되면 3미터 4미터까지 자라면서 그리고 가지가 여러 가지에요, 라일락나무처럼 그래서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천국이 내 마음에 제1현실이 되어 버리게 될 때에, 그 천국의 그림자에 내 삶의 모든 문제, 모든 영역이 다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수양산 그늘이 강동 80리를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천국의 그림자 안으로 모든 삶의 문제들이 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의 가장~ 확실한 예가 바로 뭐냐 하면, 풍랑 만난 이 배 위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건입니다.

오늘 겨자씨 비유의 말씀을 해 주신 뒤에, 비유로 가르쳐주셨다는 말씀을 34절에서 해 주십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 하셨는데 4장 전체에서, 그 천국이 마지막 겨자씨 비유에서처럼 내게서 제1현실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풍랑 만난 사건이라 이겁니다.
여기서, 천국이 제1현실이 된 사람과 이 세상의 현실이 제1현실인 사람과의 비교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일엽편주 위에 몸을 싣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제자들이 고생을 합니다.

어부들이에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자! 이 상황이 어떻게 비교가 될까요?
제자들은 지금 이 일엽편주가 바람과 이 풍랑에 흔들리고 있으면서, '죽는구나!'라는 공포감에 시달리고 있고, 예수님은 그 속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풍랑 만난 일엽편주의 상황, 정말 나뭇잎 같은 배에요.
이 갈릴리 바다 위에 떠 있는 이 배의 크기를 생각하면 나뭇잎 위에 몸을 싣고 있는 상황인데, 풍랑이 입니다, 집채 같은 풍랑이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잠을 주무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속에서는 천국이라는 현실이 풍랑 만난 일엽편주의 상황을 이겨버리고, 먹어버리고, 장악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천국? 무슨 천국, 나중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서는, 지금 돈 문제 때문에 풍랑이 일고 있는 이 상황을, 천국이라는 현실이 더 큰 현실로, 더 우선적인 현실로 마음에 다가와서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 일엽편주의 풍랑 만난 상황은, 예수님에게는 아직까지 현실이 아니에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오직 말씀으로만 확증 될 수 있는 이 천국이 제 1현실이고, 그 현실 속에 마음이 들어가 있을 뿐이지 아직은 풍랑 만난 상태가 현실이 아닙니다, 현실로 느껴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져오셨지마는, 그리고 그 가져오신 예수님과 같이 있지마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 현실보다는 풍랑이 일고 있다는 현실이 더 큰 제1현실로 다가 온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국이 오직 말씀으로만 전해지고 말씀으로만 확증될 수 있는 이 천국이, 4차원의 세계가 제1현실이 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깨어 나셨을 때에 풍랑 만나고 있는 이 상황은 그 천국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옵니다.
겨자나무가 커졌을 때 그 그늘에 새들이 깃든다는 말씀처럼, 풍랑 만나 다급해진 이 실제상황

은 천국의 그림자 안으로 들어오면서 천국적 해결방법을 통하여 해결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을 향하여 풍랑을 잠재우십니다, 다들 기절합니다.

자~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사업을 잘해보려고 합니다, 젊은이들은 자기계발서를 읽습니다, 자식을 잘 키워보려고 합니다, 훌륭한 남편에게 내조를 해보려고 합니다, 건강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 건강문제, 사업문제, 배우자문제, 부모님 문제, 자녀문제 모든 문제를, 내가 다이렉트로 그것을 잘하려고 하고, 나 자신을 계발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이 천국을 제1현실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천국이 커지도록 하게 되면 됩니다.
천국만 커지면, 자식문제 배우자문제 사업문제 건강문제, 모~든 게 다 천국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요.
수양산 그늘이 강동 80리를 간다고 천국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천국적 통치와 천국적 능력과 천국적 지혜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스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 개개의 문제들과 개개의 대상들을 우리가 자기계발서를 읽어서 발전시키고 계발해서 그것을 잘 해결하려 그러지 말고, 오직 천국이 겨자씨 같이 미비했던 그 현실이었던 천국이, 겨자나무처럼 되게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오와리국이라고 하는 일본의 한 변방에서 태어난 기노시다 도키치로가 일본 전역을 장악하는 군주가 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되면 되는 것처럼, 그 보잘 것 없는 천국의 현실감, 그렇게 느껴졌던 천국이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어떤 상황보다도 먼저 제1현실로 내게 다가올 수 있게만 된다면, 그 나머지 2,3,4,5,6,7의 현실들은 다 천국의 그림자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는 얘깁니다.

어떻게 천국이 그렇게 커집니까?
바로 앞에 부지중에 자라는 씨앗에 대한 비유에서도 그렇게 얘기 했어요.
우리는 계속 블록을 형성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발동하면 됩니다.
믿음이 뭐냐? 바로 내 마음을 뺏어가려고 하는 이 세상의 영웅들, 세상의 대상들에 대하여 블록을 형성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뭐하면 되요?
자동차 앞 유리에 비가 내릴 때, 그 와이퍼를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운전을 하는 것처럼, 내 마음의 비처럼 쏟아지는 이 세상의 현실들과 문제들을 계~속해서 십자가로, 십자가 와이퍼로 다~ 쳐내는 겁니다.
다~ 쳐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고백이지요.

이렇게 될 때에, 천국! 지금 막연해요, 너무 추상적인 얘기 같아요.
죽은 다음에나 갈 곳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천국이, 그러던 천국이 겨자씨처럼 현실감 제로로 느껴졌던 천국이, 이상해요 여러분!
내놓으라면 내놓을 것이 없어요.
돈은 갖고 있으면 내놓으라면 내놓을 수 있고, 반지도 끼고 있으면 보여줄 수가 있는데, 천국은 이상하게 너무너무 확실해서 내 눈앞에 보이는 배우자보다도 더 확실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천국을 보이라 그러면 보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말씀으로만 확증되는 이 천국이 보이는 그 어떤 현실보다도 더 확실한 현실로 마음에 자리잡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천국이 마음에 자리잡아갈 때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 경제문제의 풍랑, 건강문제의 풍랑, 자녀문제의 풍랑 그 모~든 풍랑들이 이전의 풍랑이 아닌 것입니다.
왜? 천국의 그림자 안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현재 천국이라는 게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마음이 느끼는 현실감의 대상 속에서 가장~ 작지요?
돈 문제보다 더 현실적이지 안잖아요, 배우자보다 더 현실적이지 않지요 천국이, 여러분의 건강보다 더 현실적이지 않지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거지요.
근데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발동되면 발동될수록 이상하게,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이 천국이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한 현실이 되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어떤 풍랑이 일더라도, 자녀의 풍랑, 배우자의 풍랑, 뭐 건강의 풍랑, 돈의 풍랑 어떤 풍랑이 일더라도 그 속에서 천국이 먼저 현실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상황들 그런 풍랑에 대해서는 현실감을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천국이 현실이 되어서 평강을 누리게 되

면, 이제 그 모~든 문제는 천국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 천국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오면, 이제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그 기도처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강력하게 은혜의 섭리로서 이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겨자씨처럼 작~은 현실감으로 느껴지는 천국이 겨자나무처럼 큰 제1의 현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과 내 마음으로 연합함을 통하여 내 마음을 빼앗아 가던 모든 영웅들이 다 사라지고 천국만이 내 마음을 온전히 지배하면서, 겨자나무 같은 제1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삶의 모든 순간들은 이제 천국의 그림자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